

금호타이어, 김종호 대표이사 선임

사장에서 대표이사 승진 ... 해외영업능력 살려 글로벌 마케팅 강화

금호타이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시주총 및 이사회를 열고 김종호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5월27일 발표했다.

새로 선임되는 김종호 대표이사는 1976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30년간 재직하면서 싱가포르와 중동, 뉴욕 등지에서 영업 및 무역 등을 담당한 글로벌 영업 전문가이다.

또 한국복합물류 사장과 아시아나 IDT 대표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.

금호타이어 관계자는 “특유의 해외영업력과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인 경영과 차별화된 글로벌 마케팅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갈 것”으로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28>